

## 노동시장 정보시스템의 체계화

강 순 희\*

고용서비스 선진화가 고용정책의 주요한 화두로서 주목받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노동시장 정보시스템의 체계화가 강조되고 있는데, 노동시장 정보시스템은 크게 노동시장 관련 정보(contents)와 이를 전달하기 위한 S/W, H/W, 네트워크 등의 전달시스템 둘로 나눌 수 있다.

우선은 시스템을 채우는 내용(contents)이 중요한 데 질 높은 정보가 풍부하고 상세하게 잘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 노동시장 정보는 노동력의 흐름, 즉 양성, 배치, 활용, 보전 등의 전과정과 관련한 정보로서, 고용·임금·노동시간, 생산성, 교육훈련, 근로복지, 산업재해, 노사관계 등의 노동시장 거시정보와 모집·채용·배치·보상·전직·퇴직 등 기업내 인사관련 정보, 그리고 복지, 교육, 문화, 과학기술 등의 연관 정보 등을 포괄한다. 이러한 노동시장 정보는 기업이나 개인이 시장에서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필수적인 신호이자, 국가적 수준에서는 노동시장 및 관련정책을 효과적으로 집행하는데 필요한 지도이자 나침반이다.

다음으로는 이러한 정보가 각 수요자에게 원하는 시기에 필요한 내용이 적절하게 전달이 되어야 한다. 여기에서 정보의 전달시스템으로서 S/W, H/W, 그리고 네트워크 등이 중요하다. 그간 우리는 노동시장 정보시스템과 관련하여 정보 콘텐츠 자체보다는 전달 시스템에 주로 주목하여 왔다.

먼저 노동시장 정보 콘텐츠와 관련한 과제를 살펴보자. 노동시장 정보시스템의 체계화를 위해서는 우선 노동시장 정보의 양적인 부족, 질적인 문제점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야 한다. 절대적으로 부족한 필요한 통계의 구축, 이미 구축된 정보의 세부정보 보완, 표준화 작업 등이 급선무이다. 나아가 질적 정보의 확충은 고용서비스 선진화의 요체일 것이다.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노동시장의 흐름, 경제주체의 대응 등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파악하여 의사결정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질적 정보의 확충이 더욱 중요하다. 여기에서 계층별·특성별로 요구되는 맞춤형 정보의 구축이 중요한 기능을 할 것이다. 이러한 노동시장 정보 콘텐츠의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노동시장 정보, 특히 관련 통계의 확충, DB 구축 등에 대한 체계적이고 대대적인 투자가 필요하다.

\* 중앙고용정보원 원장(shkang@work.go.kr 또는 shkang@kli.re.kr)

노동시장 정보 전달시스템과 관련해서는 그간 지적되어 왔던 문제점들이 우선적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정보간 기능 연계의 미흡과 각 정보 프로세스간 공유 부족, 부처·기관·민간 등으로 분산 구축, 관리됨에 따른 정보의 중복성 및 공백, 정보의 공동 활용 및 연계를 위한 정보표준화 체계의 미흡, 정보인프라의 하드웨어(H/W)가 HP, IBM, SUN, Fujitsu 등 다양한 형태의 플랫폼으로 존재함에 따른 연계·공유장애, 그리고 하드웨어의 노후화와 보안시스템 취약 등이 주요한 문제점들이다. 최근 정부에서 집중하고 있는 노동시장 정보시스템의 체계화는 이러한 전달시스템의 개선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노동시장 정보시스템의 체계화는 크게 두 가지의 기본방향을 가지고 있다. 첫째는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서비스 제공으로서, 수요자의 정보요구에 부응하는 방향으로 정보의 내용을 확충하고 정보간 연계·통합을 강화하는 것이다. 수요자의 발품팔기를 최소화하는 Zero-Stop 서비스, 필요한 정보와 서비스를 한 곳에 받는 One-Stop 서비스, 또한 이를 가능케 하기 위한 계층 또는 개인별 맞춤형서비스 등이 그 것이다.

두번째는 개인, 기업, 정부 등 경제주체의 의사결정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서비스 전달과 활용의 효율화이다. 전달체계의 구축을 효율적으로 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경제주체들이 노동시장 정보탐색과 활용에 드는 비용과 노력을 줄임으로써 시장 내 의사결정과정의 효과와 효율을 높이도록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당연히 관련 행정 및 서비스의 효율도 제고될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미국의 노동시장 종합정보시스템인 ALMIS, 캐나다의 노동시장 정보시스템(LMIS)과 그 인터넷 서비스망인 WorkinfoNet, 영국 Job Center Plus의 종합정보망, 스웨덴의 노동시장 정보 통합관리시스템인 LEDA(The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 of the Swedish National Labor Market Administration), 덴마크의 Integrated Database for Labor Market Research(IDA) 등을 참고할 만하다.

현재 중앙고용정보원이 중심이 되어 추진중인 고용·취업 종합정보망 구축사업은 이러한 노력의 하나이다. 고용·취업 종합정보서비스 구축사업은 참여정부 전자정부 31대 과제 중의 하나로서, 314억원의 예산을 들여 2007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된다. 2003년에는 노동시장 정보 통합제공을 위한 정보전략계획(ISP)을 추진하여 공공 및 민간의 노동시장 정보시스템 체계를 파악하고, 노동부의 고용서비스를 One-Stop으로 제공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작년과 올해에는 수요자 중심의 고용서비스의 1단계로서 청소년 워크넷과 고령자 워크넷을 구축하여 지난 9월부터 서비스를 시작하였고, 올해 내에 여성, 장애인, 기업 워크넷 등을 각각 개발할 계획이다. 또한 공공 및 민간에 산재되어 있는 고용·취업 정보를 통합하기 위한 시스템 점검, 코드연계 및 통일, 입력방식 통일 등의 작업을 수행하여 2008년 이후에는 워크넷이 명실상부한 고용·취업 포털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워크넷, 고용보험 DB, 직업훈련종합정보망,

산업·직업별 고용구조조사DB 등 현재 중앙고용정보원에 구축된 기간 노동시장 전산망의 각종 정보와 기타 외부관련 정보 등을 연계 분석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며, 노동시장 및 인력수급정책, 수요자 맞춤형 상세정보 제공 등에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 사업이 2007년까지 성공적으로 수행되면 국민들이 한 번의 클릭(Single-Sign On)으로 자신에게 맞는 양질의 고용·취업, 교육훈련, 자격, 복지서비스 등의 정보를 손쉽게 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데이터 웨어하우스(DW) 및 데이터 마이닝(data mining)의 구축이 잘되면 상세하고 신속한 노동시장 정보 자체의 확충을 바탕으로 수요자 스스로 언제, 어디서나 분산 구축된 정보를 연계하여 목적에 맞게 가공하여 사용하는 것도 가능해질 것이다. 